

진도에 3.4GW 대규모 해상풍력 들어선다

진도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으로 주민 모두에게 매월 40만원 규모의 '바람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를 지정함에 따라 진도 해역이 대규모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진도군에는 2033년까지 약 2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도군은 1단계(1.47GW)와 2단계(2.13GW)를 합쳐 총 3.6GW 규모의 대단위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3~4기와 맞먹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20년간 1조4000억 이익공유...주민 매월 40만원 수익

거대 용량으로, 약 250만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수준이다.

총사업비 20조원과 공동점속설비를 건설하는 비용 1조600억원 등 전체 21조원이 100% 민간자본으로 투입된다.

특히 진도군은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라 2031년부터 매년 막대한 한전전력기금 수익금을 배분받게 된다.

단계별 수익은 1단계에서 연 4억7000원, 2단계에서 연 107억5000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기대수익으로 20년간 총 3084억원의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확보하게 돼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여기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890억원(특별지원금 826억원, 일반지원금 64억원)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를 지정함에 따라 진도 해역이 대규모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 사진제공=진도군

이다. 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의 길도 열렸다. 이른바 '바람연금'으로 불리는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다.

진도군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비의 4%를 투자한다면 지역 내 1만6329세대 를 기준으로 1세대당 연평균 약 436만원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접 지역에 따라 세대별로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이는 20년간 총 1조4260억원 규모에 달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지정은 진도의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어업인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및 지원센터 조성 업무협약



영암군은 지난 17일 군청에서 전남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남테크노파크와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및 지원센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영암군

영암 대불산단,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선정

국비 400억 확보...친환경·스마트 미래형 건조 지원

영암군은 지난 17일 군청에서 전남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남테크노파크와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및 지원센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영암군과 전남도가 협업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선정돼 단지 내 어선 건조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400억원 유치에

성공한 후속 조치다. 어선 건조지원센터는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미래형 어선 건조를 지원하고, 국내 어선 건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확보된 국비는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운영을 목표로 대불산단에 센터 건립과 첨단 장비 구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진흥단지 지정과 센터 건립이 어선업 고도화를 바라는 대불산단 20여 어선 건조사와 90여 어선 관련 업체를 포함해 인근 지역 관련 기업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협약을 바탕으로 국내 어선 건조·개조의 핵심 기관이 될 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해 조선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지역 조선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어선 시장을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새단장 해남읍 5일시장 구경오세요"

군, 21~22일 소비촉진 사은행사 개최

해남군은 오는 21~22일 이틀간 해남읍 5일시장에서 '해남읍 5일시장 소비촉진 사은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남읍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군비 1000만원과 상인회 부담 50만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특히 해남읍 5일시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수산물동 정비와 집화동 건물 재건축으로 새단장을 완료해 쾌적한

시장 환경을 갖추게 됐다. 이번 사은행사는 시장 재개장을 기념하고, 시장 정비에 협조해 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해남읍 5일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 대상으로 해남 사랑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카드 결제 후 발급된 영수증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제시

하면 해남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경품권을 배부해 추첨을 통한 경품 행사도 함께 열린다. 경품은 1등 상품권 10만원권, 2등 상품권 5만원권, 행운상 상품권 1만원권으로 구성돼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해남읍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을 찾는 계기가 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3@gwangnam.co.kr

완도, 조림 착수...탄소흡수원 확대

13억 투입...경제림·재해 방지·지역 특화 조림

완도군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올해 조림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조림사업은 기후 위기로 인한 산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주 소득 증대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은 정부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2050 탄소 중립'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사업도 이에 발맞춰 실시하게 됐다.

군은 기후·임지 여건과 산림 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입, 경제림(47ha), 재해 방지(10ha), 지

역 특화(45ha) 등 총 102ha를 대상으로 조림을 조성한다.

한계 농지, 수변 구역 등 활용도가 낮은 유휴 토지까지 범위를 확대해 산림 외 토지에도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토지 소유자는 경제 수목 식재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종은 지역 환경에 조림하기에 적합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황칠나무와 편백, 안도호랑가시, 붉가시 나무 등을 식재한다.

특히 조림 후 숲 가꾸기와 풀베기, 침명 굴 제거 등을 통해 고사·생육 저해를 예방하고 조림 목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지난해 완도군에서 추진한 섬 숲 경관 복원 사업 대상지인 고금면 청룡리 산 정경.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강화는 물론 재해 예방과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산림 정책을 통해 숲을 건강하게 가꾸어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이달의 CEO 서형호 휴비스코리아 대표 30년 한 길 대표 '친환경 농업자재 전문기업' 자리매김

화제의 인물 남영숙 대한민국 화형 명장 꽃을 놓지 않은 50년, 호남 화훼의 부리를 지키다

남도예술인 정성우 씨네로드 대표 "우리는 목포에서 영화를 만들고 상영합니다"

2026.03 vol. 154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하화도 벵랑 끝에서 '꽃의 노래'로 피어나다

이달의 이슈 바다·정원·축제의 힘... 전남 12곳 로컬100에 오르다

커버스토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한 아이도 포기 않는 기본교육 광주전남교육특별시 시대 열 것"